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5호

2009.1.9~2009.1.15

I. Analysis Overview 1

II.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6
3. 소비자동향 8
4. 언론동향 13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III. 해외 동향 17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7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19

I. Analysis Overview

<국 내 동향>	4
[산업 정책 및 제도]	4
- 김평수	
통합 콘텐츠진흥원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진흥기관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 콘텐츠진흥원의 비전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OECD 꼴찌	4
한국은행이 내놓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는 6조7천억으로 추산	
인터넷 저작권 '묻지마식 고소' 첫 즉결심판	5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묻지마식 고소'에 대한 즉결심판이 처음으로 열려... 대전법원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 판결.	
[음악업계 동향]	6
- 김 훈	
벅스, 100억 음악·공연 전문펀드 출자	6
디지털음악 사업자인 벅스가 1월 15일 100억 규모의 음악·공연 전문펀드인 일신 M&C 투자조합에 25%의 지분을 출자.	
박성훈 전 벅스 사장, 글로웍스 지분 확대	6
인터넷 음악포털 벅스뮤직의 창업자 박성훈 전 사장이 글로웍스 지분을 기존 880만주에서 1,600만주 가량으로 지분 확대 했다고 발표.	
대형 음반사들 드라마 시장 등으로 영역확대 본격화	6
음반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드라마 출연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음반 기획사들의 드라마 시장 진출이 본격화.	
그들이 돌아왔다. 이소라, 이선희, 임창정	7
서태지, '휴먼드림' 뮤직비디오 풀버전 공개	7
기타 단신 등	8
디지털싱글 전성시대를 맞이하다.	
[소비자 동향]	8
- 서상아	
소녀시대의 강력한 신보로 2009년 음반차트 지각 변동 시작	8
소녀시대의 미니앨범 [Gee]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오랜 정체를 보이던 음반차트에 변화 조짐. 음반차트 1위에 랭크된 <u>소녀시대는 한주 동안 2만 장</u> 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전체 음반 판매량을 급상승.	

소녀시대, 새로운 음원 강자로 등장 11
 소녀시대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되어 온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의 강세가 꺾임. 소녀시대의 신보가 각 사이트마다 진입하
 여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한동안 정체기를 보이던 음원차트가 변동. 또한
 소녀시대와 빅뱅의 음원차트 경쟁도 새롭게 형성.

[언론 동향] 13
 - 박진석

2009년 상반기의 가요계, 소녀들이 점령했다 13
 언론들은 09년 상반기 가요계에서 '소녀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 이것은 지난해 동방신기를 비롯하여 서태지, 비 등의 대
 형 남자스타들의 컴백으로 남성가수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되어
 더욱 부각되고 있음.

'DRM 프리'의 물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4
 지난주 세계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끌었던 애플사의 DRM 프리 선언은
 벌써부터 그 파장이 국내 음악 산업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DRM 프리
 (free)' 음악파일은 해외는 물론 국내 음원시장에서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

줄을 잇는 해외 대형스타들의 내한공연 14
 환율 폭등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비교적 뜸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에 있는 해외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공연 기획자들의 기대감
 을 높이고 있음.

주요 단신 15
 -원더걸스, 美진출 가속 '월드스타 발돋움'
 -빅뱅, 도서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도 '빅뱅'
 -저작권보호센터, 지난 1년간 불법복제물 2851만점 적발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 장정희

이고시스템, 세계최대 음악장비전시회 '남쇼' 참가 16
 이고시스템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전시회인 NAMM 쇼에
 10년 넘게 국내 유일의 컴퓨터 음악장비 및 모니터링 스피커 브랜드인
 ESI (구: Ego Sys 또는 Ego Systems Inc.) 단독 부스로 참여.

해외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용역 공개 입찰 공고 16
 -발 주 자 : 한국 음원제작자 협회
 -제출기한 : 2009. 1. 22(목) 17:00 까지

<해 외 동 향> 17

[해외 음악산업 동향] 17
 - 고민정, 장정희

HMV Group이 라이브 공연 시장 진출 17
 HMV Group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연장을 소유한 MAMA와 연합하여 라이브 공연 시장에 진출.

MTI가 Rite Aid와 매장음악 시스템 공급계약 17
 MTI와 Rite Aid Corporation의 계약으로 MTI가 만든 매장음악과 메시지 네트워크를 위한 장소가 5,000여 곳 이상 추가될 예정.

Slacker의 iPhone용 음악 응용프로그램이 Pandora를 넘보다 18
 Slacker의 iPhone버전이 출시. Pandora를 뛰어 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이룰지 관심을 모음.

주요단신 18
 - 소니뮤직이 Wind-up Records와 디지털 유통 계약을 체결
 - 영국 Zavvi 매장 축소계획 발표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19
 - 고민정, 김평수

박진영, 세계최대 음악견본시 MIDEM 에서 기조연설 19
 미템넷 컨퍼런스에서 박진영은 데이비드 은 구글 부사장, 코트니 홀트 마이스페이스 대표 등 세계적 거물들과 함께 기조연설을 할 예정.

몽쳐야 산다! SG워너비 씨야 등 중국서 합동 쇼케이스 예정 20
 중국과 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쇼케이스. SG워너비를 비롯해 FT아일랜드, 다비치, 씨야 등 엠넷미디어 소속 가수들이 동시에 합동 쇼케이스와 앨범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

Ⅱ. 국내 동향

1. 산업 정책 및 제도

1.1 통합콘텐츠진흥원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황 및 통합진흥원의 발전방향” 세미나가 1월 16일(금) 오후2시부터, 문화콘텐츠 홀(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콘텐츠진흥원의 비전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통합콘텐츠진흥원의 출범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콘텐츠산업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선진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차세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문화부 보도자료, [2009-01-15 배포]

1.2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OECD 꼴찌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3일 내놓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이 2.5%로 영국 7.6%, 일본 5.9%, 미국 5.5%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지출 가운데 문화오락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이 3.7%로 계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5.1%를 크게 밑돌았다.

29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3개국 뿐이었다. 영국은 7.7%였고 프랑스 5.2%, 일본 6.1%, 미국 6.4% 등이었다.

한은은 한국산 문화 콘텐츠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온라인 게임과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부진한 핵심 원인으로는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끊었다. 문화콘텐츠의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은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되고 이는 투자부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저작권보호센터 추산결과, 콘텐츠 합법시장이 불법복제로 침해받은 액수는 2006년에 2조 원에 이르렀고 불법시장 규모는 4조 원대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영상은 불법시장 규모(2조7천억 원)가 합법시장(1조3천억 원)보다 많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이병희 산업분석팀 과장은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면서 "당국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아울러 ▲스토리에 바탕을 둔 창작력으로 비즈니스를 극대화하는 기획력이 부족하고 ▲디지털콘텐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제 때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는 무료라는 인식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서 돈을 내고 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2005년)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10.1명이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분야별로는 문화서비스 24.9명, 오락서비스 21.9명, 컴퓨터관련 서비스 21.8명, 오락서비스 18.3명 등이었다.

[관련기사]

"韓 문화콘텐츠 소비 OECD 꼴찌", [매일경제, 2009-01-13]

1.3 인터넷 저작권 '묻지마식 고소' 첫 즉결심판

인터넷상 저작권 관련 '묻지마식 고소'에 대한 즉결심판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혐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양(18)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첫 즉결심판에서 대전법원 김성수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K양은 전과와 거액의 합의금을 모두 피하게 됐다.

또 경찰은 인터넷 상 저작권 관련 묻지마 고소 문제 처리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력 집중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청소년들은 블로그 등에 무심코 올려놓은 노래, 영화, 소설 등으로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부모는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경찰이 저작권법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이번 심판 청구로 웹 상 저작권과 관련 빈번하게 일어난 묻지마 고소의 문제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터넷 저작권 '묻지마식 고소' 첫 즉결심판 벌금 5만원" [뉴시스, 2009-01-15]

경찰, '묻지마 저작권 고소'는 "멈춰", 해럴드 뉴스, [2009-01-15]

2. 음악업계 동향

2.1 벅스, 100억 음악, 공연 전문펀드 출자

디지털음악 사업자인 벅스가 1월 15일 100억 규모의 음악·공연 전문펀드인 일신 M&C 투자조합에 25%의 지분을 출자했다. 이번 출자는 당 펀드에서 만들어진 음악콘텐츠에 대한 독점 유통권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 졌다.

이번 투자에 참여한 업체들로는 일신창업투자, 인터파크INT, 한국모태펀드 및 한국산업은행 등이 참여 했으며, 7년간 존속 운영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벅스, 100억 규모 음악·공연 전문펀드 출자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9.01.15]
아인스디지털, 일신 M&C 투자조합에 100억 규모 지분 출자 [DIP통신 2009.01.15] 외

2.2 박성훈 전 벅스 사장, 글로웍스 지분 확대

인터넷 음악포털 벅스뮤직의 창업자 박성훈 전 사장이 글로웍스(대표 최기현) 지분을 기존 880만주에서 1,600만주 가량으로 지분 확대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박 전사장의 지분율이 16.4%로 높아졌으며, 우호지분을 포함하면 약 20%대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현재, 글로웍스는 해외 부동산 및 리조트업체와의 제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벅스뮤직은 아이스디지털에게 인수되어 글로웍스와는 사업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다.

[관련기사]

글로웍스 최대주주 박성훈씨, 지분 두배 확대 네이버 [한국경제TV 2009.01.14]
벅스뮤직의 박성훈 사장, 글로웍스로 재기 노려 네이버 [이데일리 2009.01.14] 외

2.3 대형 음반사들 드라마 시장 등으로 영역확대 본격화

음반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드라마 출연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음반기획사들의 드라마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 에덴의 동쪽의 경우 엠넷미디어의 송승헌, sm엔터의 이연희가 열연을 하고 있으며, 최근 방영을 시작한 꽃보다 남자의 경우는 DSP미디어의 김현중, YG의 구혜선이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시장 진출 외에도 음반회사 소속 연예인들의 버라이어티(빅뱅의 대성, 이효리 등), 공연 등 활발한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음반사들의 연기영역 진출 확대는 가수들의 기존 영역(음악프로그램)축소에 따른 엔터테인먼트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며, 음반사업의 축소에 따른 다양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음반중심의 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사업영역으로 하는 영역확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에덴의 동쪽 vs 꽃보다 남자' 음반기획사 대결? [스포츠서울 - 2009년 1월 11]

2.4 그들이 돌아왔다. 이소라, 이선희, 임창정

이소라가 신보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2007년 윤도현의 러브레터 이후 2년 만에 '음악여행 라라라'를 통해 TV 활동을 시작했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선희가 14집 앨범을 2월 발표한다. 최근 불후의 명곡을 통해 TV활동을 시작한 이선희는 2005년 13집 '사춘기'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배우활동에 전념하며 가수활동을 접은 임창정도 6년 만에 앨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매예정인 11집은 3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발라드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군복무 후 5집을 발표한 김종국의 앨범이 소속사인 원오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약 8만장 정도 판매된 것으로 발표됐다. 따라서 2집(한남자) 이후 연속 10만장 판매고 달성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관련기사]

이소라, '음악여행 라라라'로 2년만에 TV컴백 [스타뉴스 - 2009년 1월 15일]

이선희 3년만에 정규음반 발매 컴백 [중앙일보 - 2009년 1월 15일]

임창정, 은퇴 선언 6년만에 가수 복귀 [매일경제 - 2009년 1월 15일]

김종국, 정규앨범 4연속 10만장 판매 대기록 '눈앞' [스타뉴스 - 2009년 1월 13일]

2.5 서태지, '휴먼드림' 뮤직비디오 풀버전 공개

15일 서태지가 5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휴먼드림-파이널 에피소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러닝타임은 약 11분으로 영화와 같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약 5억 원의 제작비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곰TV를 통해 공개된 '휴먼 드림' 뮤직 비디오 풀버전은 지난달 12일 공개된 6분 길이의 에피소드 1에 이은 것이다.

뉴스엔에 따르면 서태지 컴퍼니는 약 11분 분량의 '휴먼드림' 뮤직비디오를 30분 분량으로 재편집해 극장에서 상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극장판 '휴먼드림' 뮤직비디오는 2월 중 오픈 예정인 메가박스 '서태지관'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서태지, '휴먼드림' 뮤직비디오 풀 버전 공개 아시아투데이 2009.01.15

서태지 '휴먼드림' 뮤비 30분 재편집 극장개봉 검토중 뉴스엔 2009.01.15

2.6 기타 단신 등

- 디지털싱글 전성시대를 맞이하다

가요계가 제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지털 싱글 발매를 선호하며, 디지털 싱글이 붓물 터지듯 발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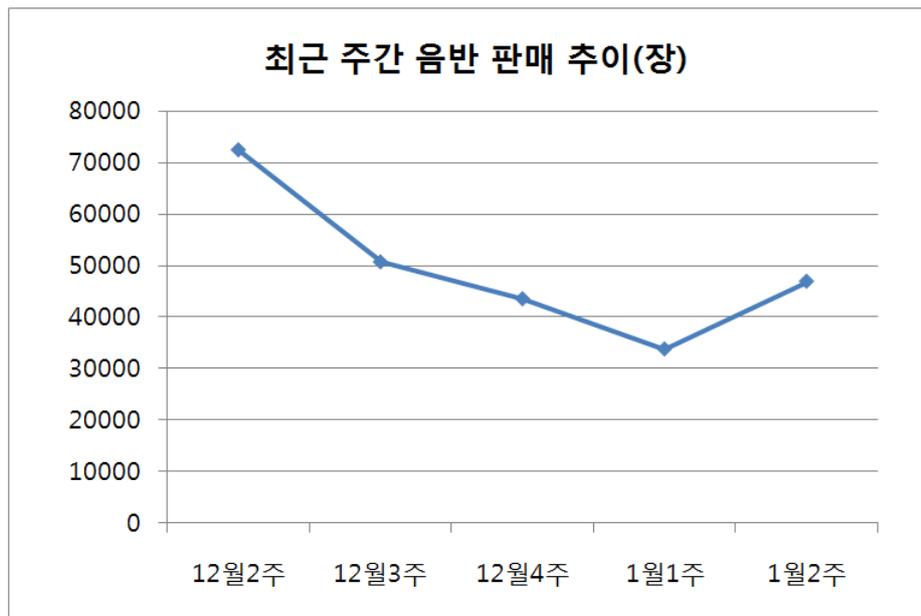
[관련기사]

마이데일리 '가요계 붓물', 디지털 싱글 [마이데일리 - 2009년 1월 12일]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소녀시대의 강력한 신보로 2009년 음반차트 지각 변동 시작

본격적인 새해의 일상으로 들어선 2009년 1월 2주(1월 8일 ~ 1월 15일)의 음반동향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돼오던 음반 판매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3만 장 언저리까지 추락하였던 음반 판매량은 4만 6천 장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출처 : 주)한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 경제 (기간:1월 8일 - 14일)

이처럼 주간 음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주 발매를 한 소녀시대의 미니앨범 [Gee]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것을 들 수 있다. 금주 음반차트에서 1위에 랭크된 소녀시대는 한 주 동안 2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그동안 정체되었던 차트를 재편하였다. 소녀시대의 음반 판매량은 지난주에 비해 급상승한 전체 음반 판매량과 비슷한 수치로 금주 음반 판매량의 상승은 소녀시대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녀시대의 새 앨범 발매는 2007년 11월 발매된 소녀시대 1집 앨범의 판매량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동안 꾸준하긴 하였지만 주간 판매량이 1,000장 이하에 머물렀던 소녀시대

1집 앨범은 신보 발매와 더불어 판매량이 동반 상승하여 차트 내 순위 역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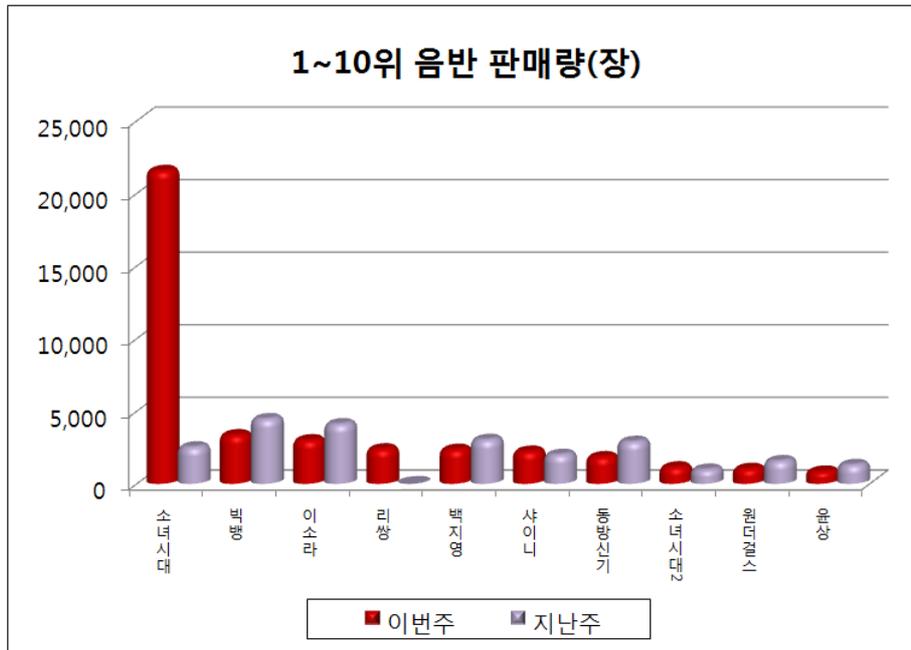
소녀시대 이외에도 리쌍과 바비킴이 신보를 출시하면서 차트 진입에 성공하였고 이들의 본격적인 음반 홍보활동이 시작된다면 신보 음반들의 강세가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4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21,559	2,524	2009-01-07
2	▼1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3,361	4,468	2008-11-05
3	▼1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3,010	4,117	2008-12-17
4	진입	리쌍 5집 / 백아절현	엔티움	가요	2,389	0	2009-01-09
5	▼2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2,362	3,037	2008-11-14
6	-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A버전)	에스엠	가요	2,227	2,011	2008-08-29
7	▼3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849	2,902	2008-09-26
8	▲5	소녀시대 1집 / 소녀시대	에스엠	가요	1,147	985	2007-11-01
9	▼1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1,039	1,579	2008-09-30
10	-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850	1,309	2008-12-11
11	▲4	원더걸스 1집 / The Wonder Years	로엔	가요	843	1,579	2007-09-13
12	진입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823	0	2009-01-12
13	▲5	이은미 6집 / Ma Non Tanto	소니	가요	816	705	2005-11-07
14	▼7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796	1,849	2008-10-15
15	▲2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789	708	2008-12-04
16	▲3	엠씨더맥스 6집 / Via 6	비타민	가요	661	703	2008-09-30
17	▲6	윤종신 11집 / 동네 한 바퀴	로엔	가요	634	573	2008-11-26
18	▲4	팀 4집 / Lowwis	로엔	가요	580	580	2007-10-23
19	▲7	더블유 앤 웨일 1집 / Hardboiled	로엔	가요	573	445	2008-09-24
20	▲4	샤이니 1집 Repack / Amigo	에스엠	가요	570	553	2008-10-29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월 8일 -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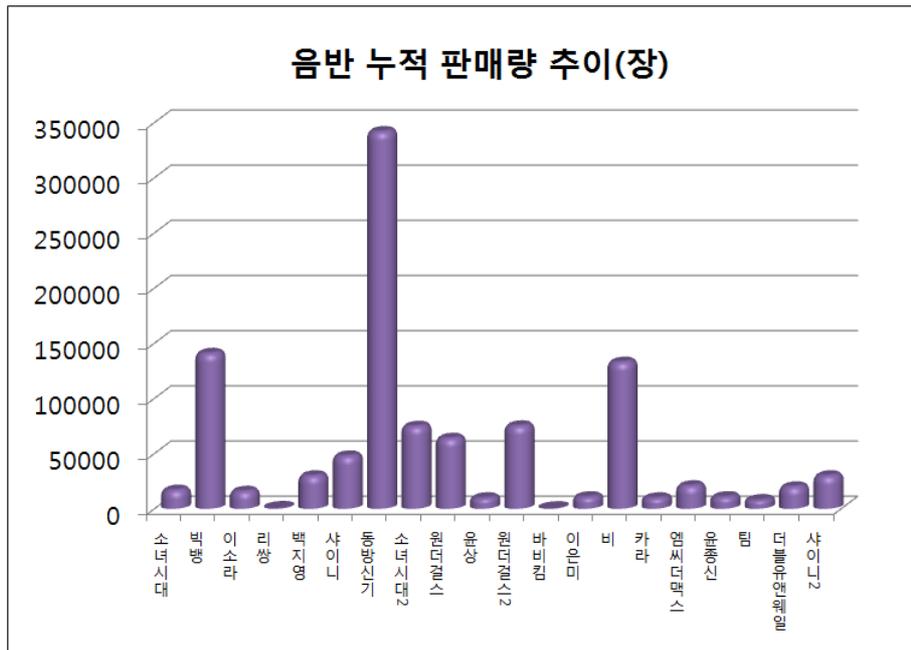
이에 비해 그동안 최상위권을 지키던 빅뱅, 이소라, 백지영 등은 여전히 차트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판매량에 있어 1위 소녀시대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로서 1월 2주

음반차트는 2008년의 흔적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동시에 신년 차트로 재편성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상위차트와 하위차트의 음반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강력한 신보와 기존의 스테디셀러의 판매량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시즌 변동기의 과도기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8일 - 14일)

누적 판매량의 경우 기존의 강력한 판매량을 기록하였던 동방신기와 빅뱅 등의 기록이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더걸스 이후 새로운 걸 그룹의 강세를 예고하고 있는 소녀시대가 얼마만큼의 차트 재편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해볼만한 부분이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10일, 단 이은미 음반의 경우 2008년 1월 12일부터 2009년 1월 10일까지 누적 판매치)

지난 가을 아아돌 대전을 살짝 피해갔던 소녀시대가 새해가 되자마자 아이돌의 비수기를 틈타 신보를 발표하였다. 발매 초기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주 판매량을 좌지우지 할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리쌍과 바비킴의 신보 역시 차트 진입에 성공하면서 2009년 음반차트의 시작은 1월 2주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교적 음반 판매의 비수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새롭게 나타난 소녀시대의 강세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또한 소녀시대의 강세 속에서 조용하게 차트 안으로 진입한 신보들이 기존 스테디셀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차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2 음원동향 : 소녀시대, 새로운 음원 강자로 등장

1월 2주의 음원동향은 소녀시대의 등장으로 인해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되어 온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의 강세가 꺾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떠들썩한 연말연시 시즌이 지나고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된 1월 2주는 소녀시대의 신보가 각 사이트마다 진입하여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정체기를 보이던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녀시대의 신곡 <Gee>는 엠넷과 도시락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고 벅스와 멜론에서는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음원 차트의 신 강자로 등극하였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아이돌 가수들의 음원이 2008년 활동마감과 함께 그 기세가 주춤해지면서 소녀시대의 강세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소녀시대의 강세와 함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빅뱅의 선전을 지적할 수 있다. 동방신기, 원더걸스, 비 등 2008년 하반기에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가수들이 음원차트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빅뱅은 다양한 노래들을 차트 내로 진입시키면서 <Gee> 한 곡으로 강세를 보이는 소녀시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빅뱅의 경우 각 음원 사이트마다 3~4곡의 음원을 차트에 랭크하고 있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음반에 이어 음원에서도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었다.

순위	박스 1/1 ~ 1/7	엠넷 1/5 ~ 1/11	도시락 1/5 ~ 1/11	멜론 1/4 ~ 1/10
1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케이윌 / 러브119
2	빅뱅 / Stylish (The FILA)	김경록 / 이전 남이야	동방신기 / 주문	소녀시대 / Gee
3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빅뱅 / Stylish (The FILA)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4	소녀시대 / Gee	SS501 / U R Man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노을
5	케이윌 / 러브119	케이윌 / 러브119	케이윌 / 러브119	카라 / Pretty Girl
6	카라 / Pretty Girl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SS501 / U R Man	린 / 매력쟁이
7	김경록 / 이전 남이야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김경록 / 이전 남이야	SS501 / U R Man
8	거미 / 내게로 오는 길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9	빅뱅 / 붉은노을	빅뱅 / 붉은노을	빅뱅 / Stylish (The FILA)	원더걸스 / Nobody
10	이승철 / 듣고 있나요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빅뱅 / 붉은노을	김경록 / 이전 남이야
11	SS501 / U R Man	카라 / Pretty Girl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12	린 / 매력쟁이	린 / 매력쟁이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비 / Rainism
13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린 / 매력쟁이	손담비 / 미쳤어
14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이승철 / 듣고 있나요	이지아 / 러브바이러스	럼블피쉬 / 비와 당신
15	이소라 / 트랙8	민경훈 / 하루	원더걸스 / Nobody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16	임재범 / 만남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빅뱅 / Number1	빅뱅 / 하루하루
17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빅뱅 / Wonderful
18	노라조 / 슈퍼맨	비 / Rainism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은지원 / Dangerous
19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원더걸스 / Nobody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빅뱅 / Stylish (The FILA)
20	이지아 / 러브 바이러스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서태지 / Human Dream	이수영 / 이련여자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기존 곡들의 강세가 뚜렷한 멜론을 제외하고는 엠넷, 도시락 등의 사이트의 음원차트가 많은 변동을 보이는 모습이였다. 지난 연말 큰 인기를 끌었던 <총 맞은 것처럼>, <매력쟁이> 등의 하락세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소녀시대, 빅뱅, 김범수의 신곡이 빠르게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드라마 음악이나 피쳐링 중심의 음원에서 강세를 보였던 음원차트가 음반동향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신보 음원의 출시가 음반과 함께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월 2주 음원동향은 음반과 마찬가지로 소녀시대의 신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다. 소녀시대 뿐만 아니라 김범수, 빅뱅, 이소라, 가비앤제이의 신곡이 속속 차트 내로 진입하면서 그 동안 음원차트가 얼마나 신보에 목말랐었는지 증명되고 있다. 한동안 정체기를 보였던 음원차트가 본격적인 신보 출시와 함께 얼마나 많은 변화 양상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자.

4. 언론 동향

4.1 2009년 상반기의 가요계, 소녀들이 점령했다

언론들은 09년 상반기 가요계에서 '소녀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지난해 동방신기를 비롯하여 서태지, 비 등의 대형 남자스타들의 컴백으로 남성 가수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되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봉장은 최근 가요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소녀시대'다. 소녀시대는 지난 1월 7일 첫 번째 미니앨범 'Gee'(지)를 발표하고 가요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각종 음반판매량 차트에서 일간차트와 주간차트(1월 첫째 주)를 모두 석권하며 자신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더불어 타이틀곡 '지' 역시 공개 이틀 만에 국내 최대 음원 판매 사이트인 멜론을 비롯한 도시락, 엠넷, 소리바다, 벅스, 싸이월드 등 대형 음원 판매 사이트에서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즉, 소녀시대는 현재 온-오프라인 음악시장을 평정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녀시대만이 소녀들의 강세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4~10일 음반 차트에서 소녀시대가 1위, 이소라가 2위, 그리고 백지영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음반 판매량에서 약세를 보이는 여가수들이 음반 판매 5위권에 세 팀이나 이름을 올린 것은 보기 드문 풍경으로, 음반 판매량으로 선정하는 골든디스크 본상에 지난해 여가수가 한 명(팀)도 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여가수들의 약진이다. (일간스포츠 보도자료 인용)

이러한 강세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여성 5인조 그룹 '애프터 스쿨'은 손담비의 네임 파워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며 기대를 받고 있고, 인기 여성그룹 주얼리의 두 멤버는 '주얼리-S' 라는 유닛 그룹의 결성을 알리며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여성 5인조그룹 '카라' 역시 얼마 전 발표한 두 번째 앨범 '프리티걸'이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원더걸스, 소녀시대의 양 강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소녀들 2009 상반기 가요계 '맹목' 점령했다 [뉴스엔 2009-01-15 12:13:29]

소녀시대, '지' 로 온-오프라인 싹쓸이 [동아일보 2009-01-13 11:19]

원걸-소시-카라, 3색 인기요인은? [조이뉴스24 2009-01-13 18:45]

'새해벽두' 가요계 여가수들 접수 했다 [일간스포츠 2009-01-11 15:29]

4.2 'DRM 프리'의 물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주 세계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끌었던 애플사의 DRM 프리 선언은 벌써부터 그 파장이 국내 음악 산업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DRM 프리(free)' 음악파일은 해외는 물론 국내 음원시장에서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특히 애플은 미국 최대 디지털 음악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음원판매 동향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들이 DRM 즉, 디지털 음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결정 했다는 것은 국내 음악시장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변화를 예고한 것이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업계가 발표한 통계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8월 출시한 'DRM 프리' 상품에 가입한 회원 규모가 4개월여 만에 전체 유료회원의 10%대로 올라갔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음악서비스 사이트 '멜론'을 이용하는 유료회원 85만 명 가운데 11만5천여 명이 DRM 프리 상품을 이용 중이며, KTF는 '도시락' 회원 38만 명 중 4만3천명이 DRM 프리 상품을 선택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인용)

한편, 통신사 이외에 음원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리바다 등의 업체들은 이미 DRM 프리 음원을 제공해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가된 DRM 프리 다운로드 상품을 출시했던 소리바다는 무제한 스트리밍에 4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마트 상품(월 6천원)과 15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월 1만원)으로 하루 결제액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된 DRM제도 논란이 결국, 시장 확대의 필요성과 맞물려 DRM 프리 제도의 합의라는 결과를 낳았고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업계는 이러한 'DRM 프리'의 확충이 향후 음악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음악파일 'DRM 프리' 세계적 추세 [연합뉴스 2009-01-15 06:11]

음악파일 'DRM 프리' 유료회원 10%대 증가 [아시아투데이 2009-01-15 09:34]

휴대폰 음악서비스 'DRM 프리'가 대세 [헤럴드경제 2009-01-14 10:45]

애플 "DRM 없이 음악 이용 가능"...디지털 음원 시장 지각변동 [한국경제 2009-01-13 18:31]

4.3 줄을 잇는 해외 대형스타들의 내한공연

올 한해는 환율 폭등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비교적 뜸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반기 유명 록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에 있는 해외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공연 기획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우선 오는 3월과 4월, 영국 브릿팝을 대표하는 그룹 '트래비스'와 '오아시스'가 내한한다. 두 밴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타공인' 영국의 음악을 대표하는 밴드인데 특히 '트래비스'는 지난해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에서 무대를 뜨겁게 달구며 큰 환호를 받았고 이러한 한국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발걸음을 했다.

또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므라즈(Jason Mraz)도 2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갖는데 그는 지난해 3월, 8월 공연을 모두 매진시킨 것에 힘입어 이번 공연은 5000석 규모로 객석을 늘려 팬들을 맞는다. 이밖에 미국R&B 음악계의 톱스타 '존 레전드'가 3월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성공을 거둔 음악영화 '원스'의 주인공들도 내한 공연을 갖는다.

서울신문의 12자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연이은 공연에 대해 공연기획사 '프라이빗 커브'의 추나현 과장은 "환율 상승으로 공연 개런티가 높아졌지만 티켓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객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아무리 불황이라도 일단 앨범으로 국내 팬들에 인정을 받은 아티스트의 공연은 판매율 면에서도 크게 경기를 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해외팝스타 국내무대 줄잇는다 [한국경제 2009-01-15 18:33]
 美R&B 가수 존 레전드, 3월 첫 내한공연 [아시아경제 2009-01-13 19:47]
 해외 팝스타 줄줄이 서울서 만난다 [서울신문 2009-01-12 03:33]
 8년만에 내한공연 세계적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서울경제 2009-01-12 17:51]

4.4 주요 단신

원더걸스, 美진출 가속 '월드스타 발돋움'

원더걸스는 2월 28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3월 5일 미국 LA(윌튼 시어터), 6일 오렌지카운티(라미라다 시어터), 8일 뉴욕(맨하튼 센터 해머슈타인 볼룸) 공연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원더걸스, 美진출 가속 '월드스타 발돋움' [조이뉴스24 2009-01-12 11:21]

빅뱅,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도 빅뱅

그룹 '빅뱅'이 내놓은 도서 '세상에 너를 소리쳐!'가 예약 판매 만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빅뱅, 베스트셀러 차트에서도 빅뱅 [뉴시스 2009-01-15 11:36]

저작권보호센터, 지난 1년간 불법복제물 2851만점 적발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온오프라인을 합해 전년 대비 무려 126.56%가 증가한 약 2851만4662점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보호센터, 지난 1년간 불법복제물 2851만점 적발 [전자신문 2009-01-13 16:12]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이고시스템, 세계최대 음악장비전시회 '남쇼' 참가

(주)이고시스템 국내 중소 음악장비 업계 최초로 부스 2개 동시 전시!!

이고시스템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 전시회인 NAMM 쇼에 10년 넘게 국내 유일의 컴퓨터 음악장비 및 모니터링 스피커 브랜드인 ESI (구: Ego Sys 또는 Ego Systems Inc.) 단독 부스로 참여했다. 이번 NAMM 쇼에는 ESI 브랜드 부스 외에도 기타 전문 브랜드 Shaman Guitar 출시와 함께 규모는 작으나 최초로 단독 기타 부스를 선보였다.

여타 IT 관련 전시회들과 달리 음악 악기 전시회에는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은 인지도를 올리기 힘든 미국 음악 전문 전시회에서 주류 전시관에서는 부스를 차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대기업들도 현지 업체를 인수합병 하는 방법이나 현지 업체와 협력 또는 용역을 줘야 전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고시스템은 유럽에서 그동안 꾸준히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와 신뢰를 얻어 ESI 2009년 제품 라인업 및 이고시스템이 직접 디자인하고 양산한 Shaman Guitar 스탠다드 및 커스텀 모델들, 그리고 2009년 출시 예정인 AttiTube 진공관 기타 앰프로 선보이게 되었다.

[관련기사]

관련사이트 <http://www.namm.org/>

이고시스템, 음악장비전시회 '남쇼' 참가 [아이뉴스24 2009.01.13]

5.2 해외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용역 공개 입찰 공고 안내

1. 사 업 명 : 해외음악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9 5.31
3. 사업범위 : 해외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해외음원DB 매핑시스템 구축
4. 발 주 자 : 한국 음원제작자 협회
5. 제출기한 : 2009. 1. 22(목) 17:00 까지
6. 입찰장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정보화사업팀 02-711-9731 [603]

[관련사이트]

한국음악제작자협회 <http://www.kapp.or.kr/>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HMV Group이 라이브 음악 시장 진출

HMV(His Master's Voice) Group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연장을 소유한 MAMA(Showroom for Media and Moving Art)와 제휴하여 라이브 공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HMV가 들어갈 라이브 공연시장은 연간 1조 파운드의 시장으로 추산된다. 합작 회사는 전체 시장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0만 파운드의 시장점유가 될 것이라고 HMV는 말했다.

새로운 회사는 11개의 공연장을 소유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런던 서쪽에 있는 공연장인 Hammersmith Apollo의 이름이 HMV Appllo로 변경될 예정이다.

HMV에게 라이브 공연 시장은 불법 다운로드와 온라인 스트리밍 기술, 그리고 소비침체로 인해 HMV의 수익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합작회사는 MAMA에 의해 운영 관리되며, MAMA가 HMV에 바로 합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동 CEO인 MAMA의 Dean James는 말했다.

HMV는 공연장 사업부분 외의 MAMA 매니지먼트 사업은 인수 하지 않을 전망이다.

- 음반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반 회사들이 디지털 음원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HMV의 라이브 음악 시장 진출은 우리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HMV뿐만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반 소매상들 또한 라이브 공연 시장을 탈출구로서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브 공연 시장이 앞으로 전반적인 음악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

[관련기사]

HMV Group plugs into live music market, Times Online, 2009-01-15

1.2. MTI가 Rite Aid와 매장음악 시스템 공급 계약을 통해 소비자들과 만나다

MTI(Music Technologies International)와 Rite Aid Corporation사이의 매장음악 시스템 공급 계약은, MTI가 제작한 매장 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음악과 메시지 네트워크를 위한 5,000여 곳의 장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TI의 Rite Aid 전용 음악과 메시지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전역에 있는 5,000여 곳 이상의 Rite Aid 상점에서 들을 수 있다. "Rite Aid Radio"는 Rite Aid의 손님들을 즐겁게 만든다. 또한 MTI의 프로그램은 Rite Aid가 그들의 고객에게 방송 메시지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실 이러한 제휴는 1990년대에 MTI가 Rite Aid에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것을 다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MTI는 지금의 프로그램이 예전 것과 비슷하지만 많은 점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MTI의 대표 Bradley Golden은 이 프로그램이 고객들에게 상점에서 보다 조화롭고 기분 좋은 음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Rite Aid Radio Network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소매상이자 메시징 네트워크를 소유한 업체이다. MTI는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Rite Aid가 소유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위성 방송을 중계한다.

*MTI(Music Technologies International) - 기업의 청각적 환경을 위한 음악을 주문 생산하는 회사

*Rite Aid Corporation - 식품, 잡화, 약품 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드러그 스토어 체인

[관련기사]

Music Technologies International to Provide In-store Music and Messaging to Rite Aid, PR Newswire (press release), NY, 2009-01-13

1.3 Slacker의 iPhone 음악 응용프로그램이 Pandora를 넘보다

개인전용 웹 혹은 휴대장치용 온라인 라디오 서비스인, Slacker가 휴대 전화로 자신의 영역을 옮기고 있다. 지난주 CES에서 Apple사는 최신형 BlackBerry 휴대폰에서도 작동하는 새로운 버전의 Slacker를 출시했다. 그리고 14일, iPhone에서 구동 가능한 버전을 내 놓았다.

iPhone에 있는 Slacker는 웹상 버전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으로 100가지 이상의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으며, 아티스트를 찾아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찾을 수도 있다. Cover Flow-style 인터페이스는 재생 목록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앨범과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Pandora는 특정 아티스트나 노래를 기반으로 라디오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으나, 그 스테이션이 장르에만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Slacker는 개인의 취향이나, 인기 그리고 발매 연도에 따라 다양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Slacker는 Pandora처럼 자유롭게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웹상의 Slacker에 로그인 했다면 iPhone에서는 접속 할 수 없다. 왜냐하면 Slacker는 한 번에 한 곳에서만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Slacker는 Pandora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ES란?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로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말한다.

[관련기사]

Slacker's iPhone Music App Gives Pandora a Run For Its Money, Technologizer, CA, 2009-01-14
Too lazy for Pandora? Try Slacker, CNET News, CA 2009-01-14

1.4 주요단신

- 소니뮤직이 Wind-up Records와 디지털 유통 계약을 체결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Wind-up Records가 디지털 권리를 포함한 독점적 유통계약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상업적 채널, 그리고 온라인 및 이동통신을 포함하는 다양한 디지털 장치들에서 Wind-up에 소속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이다.

[관련기사]

Sony Music Entertainment Announces Digital Distribution Agreement with Wind-up Records, PR Newswire (press release), NY, 2009-01-13

- 영국 음악 소매상 Zavvi 매장 축소계획 발표

영국의 음악 소매상인 Zavvi가 앞으로 북아일랜드의 몇몇 매장을 비롯한 18개의 매장을 닫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Zavvi의 영국과 아일랜드 지부는 지난 달 크리스마스 이후에 22개의 매장을 닫았다. 그리고 14일, 경영자들은 Belfast, Derry, Newry 와 Newtonabbey를 비롯한 18개의 매장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Music retailer Zavvi to close more outlets in NI, Belfast Telegraph, Uk 2009-01-14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박진영, 세계최대 음악견본시 MIDEM 에서 기초연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세계 뮤직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기 위해 15일 프랑스 칸에 입성한다.

14일 박진영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한 박진영은 오는 17~18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미데미넷 컨퍼런스에 기초 연설자로 나서기 위해, 15일 미국에서 곧바로 칸에 도착할 예정이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진영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 미데미에서 JYP엔터테인먼트의 스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데미 초청 강연은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음악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세계 음악산업의 관심 및 인터내셔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미데미넷 컨퍼런스에서는 박진영 외에도 데이비드 은 구글 부사장, 코트니 홀트 마이스페이스 대표 등 디지털 음악업계와 관련한 세계적 거물들도 함께 기초 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진영을 포함, 이번 기초 연설자들의 이름과 사진은 현재 미데미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프랑스 'Reed Midem'이 주관하는 '미데미(Midem)'은 매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음악 견본시이다. 지난해 미데미에는 88개국 총 4505개 회사의 음악 및 음반 관련

중사자들이 참여했으며, 43번째를 맞는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미덤투넷'은 음악계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로 미덤투 기간에 개최된다

[관련기사]

“박진영, 세계 음반박람회서 기조 연설 한다” 중앙일보, 2008-01-14

“박진영, 15일 칸 입성..세계 최대 음악검본시서 기조연설” 스타뉴스, 2008-01-14

2.2 뭉쳐야 산다! SG워너비 씨야 등 중국서 합동 쇼케이스 예정

국내 인기 가수들이 꺼져가는 한류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한류가 주춤한 가운데 2009년에는 인기 가수들이 합동 무대를 만들어 현지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준다.

그 시작은 다음달 말 중국과 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쇼케이스. SG워너비를 비롯해 FT 아일랜드, 다비치, 씨야 등 엠넷미디어 소속 가수들이 동시에 건너가 합동 쇼케이스와 앨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그동안 가수 개인이 각개격파 식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던 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 중인 DR뮤직의 윤등룡 대표는 "국내 음반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올해는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단순히 가수 개개인이 활동하기 보다는 여러 가수가 팀을 이뤄 활동함으로써 한류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은 댄스보다 발라드 쪽이 강세를 보이는 인도 중동 같은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 목표로 이들 지역에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SG워너비-씨야 등 내달 중국서 합동 쇼케이스”, 스포츠조선 2008-01-13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